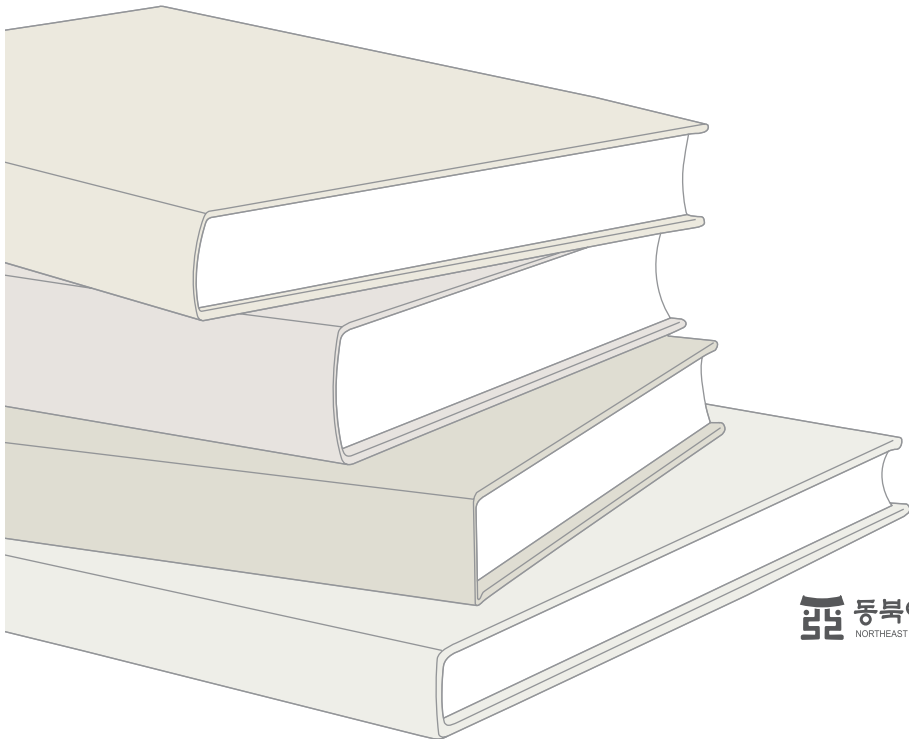


2009

동북아역사재단
도서목록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ublication List



2009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ublication List



2009
동북아역사재단
도서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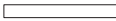
발굴보고서와 도록

Excavation Reports and Catalogues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pecial Research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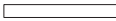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search Series



동북아역사재단 교양서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ooks for General Rea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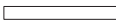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ranslation Series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Sources for Northeast Asian History



기타

Other Pub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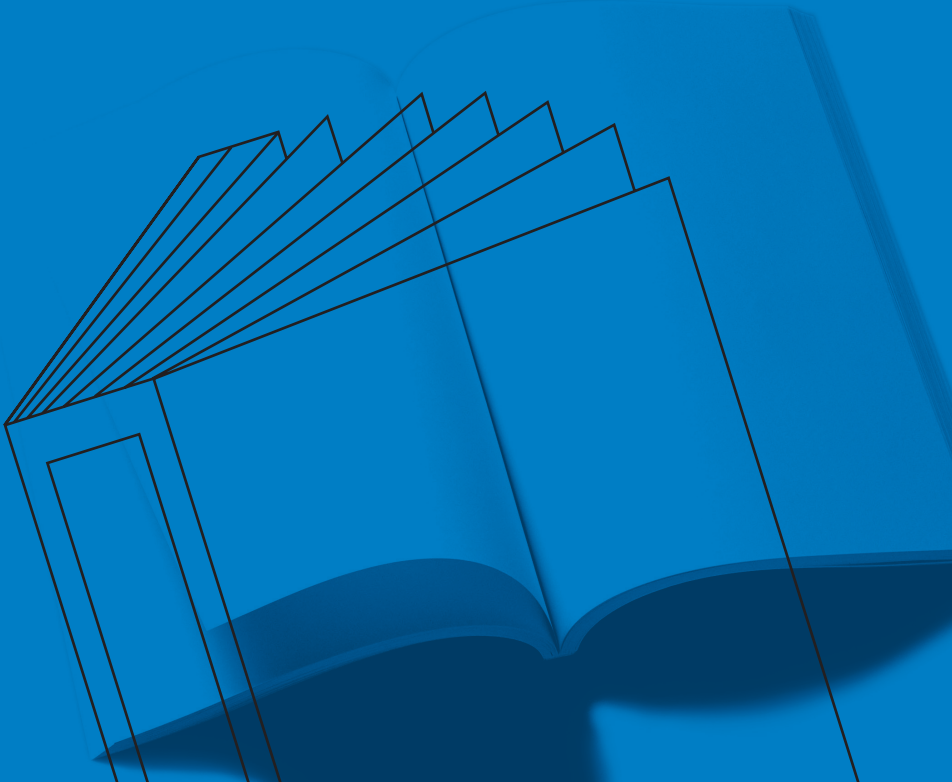
Excavation Reports and Catalogues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구려·발해 등 우리의 고대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 땅까지 뻗어나가던 웅장한 기상을 되살리고, 중앙아시아의 국가들과 교류하던 문화적 우수성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중국·몽골·러시아 등지를 직접 조사하여 우리 조상들이 남긴 흔적을 찾아내고 문화적으로 상호 교류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연구기관들과 함께 엮어낸 발굴보고서와 도록에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진귀한 유물 사진과 각종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빼앗긴 고구려 고분 유적들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발굴보고서와 도록을 통해 우리 역사의 흔적과 그 숨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동북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했던 우리 역사의 찬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cavation Reports and Catalogues

발굴보고서와 도록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I·II

Koguryo Relics in Japan I·II



동북아역사재단 편 국배판

424쪽 2008년

39,000원

ISBN 978-89-6187-065-8

동북아역사재단 편 국배판

461쪽 2009년

39,000원

ISBN 978-89-6187-120-4

고구려 역사연구에서 문헌 자료가 아닌 실제 유물이나 유적을 직접 조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를 대표하는 주요 유적들은 일제시기 일본 학자들에 의해 이미 발굴 조사된 바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던 일본인들은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기 전인 1900년대 초반부터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조사했습니다. 이 당시 발굴 조사된 상당수의 유물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현재 일본의 여러 대학과 박물관에는 상당량의 고구려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일본에 있는 다양한 고구려 유물들을 보며 일제강점기의 아팠던 우리 역사를 직면하게 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고구려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그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인정한 고구려 문화의 우수성에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자긍심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몽골 고비 알타이의 암각화

Petroglyphs in Bayan-Uul Sum, Gobi-Altai Aimag in Mong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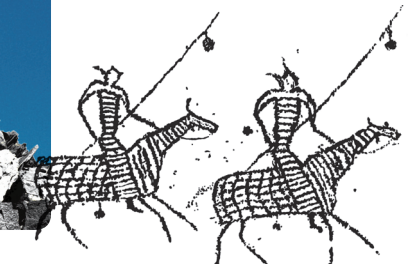
● 동북아역사재단 · 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편

📖 국배판 📏 435쪽 📅 2008년

💰 39,000원

ISBN 978-89-6187-077-1

몽골 고비 알타이와 호브드 아이막 등지는 인도 이란계 종족과 몽골로이드가 끊임 없이 패권을 다투던 곳이었고, 흉노 이후 선비, 유연, 돌궐, 위구르 그리고 몽골 제국 등 유목 민족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흥망을 거듭한 곳이었으며, 각 시대마다 주변 지역과의 협력과 투쟁 등 끊임없는 교류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비 알타이 바양 올숨의 암각화 속에 그려진 깃발과 창을 들고 서로 싸우는 기마병, 개마무사도 그리고 우차 행렬도 등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전 시대의 암각화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주제들이며, 당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급변했음을 증명하여 주는 것들입니다. 또한 고구려 초기의 고분벽화 속에도 이와 유사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고비 알타이 아이막 바양 올숨 내의 여덟 개 암각화 유적지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암각화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이 지역 암각화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소개일 뿐만 아니라 광역의 문화권 속에 동질의 문화구역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07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 보고서

The 2007 Excavation Report on the Kraskino Site in Primorsky Krai



동북아역사재단 · 러시아과학원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편

46배판 451쪽 2008년

17,000원

ISBN 978-89-6187-073-3

발해 유적의 보고인 크라스키노는 러시아 연해주 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발해 당시에는 신라, 일본과 교류하던 중심 도성으로 발해의 해륙교통의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은 현재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주요 교통로 상에 있으면서 남·북한, 일본과의 교류 통로로, 동아시아 물류의 기점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이 성에 대한 발굴 조사는 단지 발해 사 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동아시아 국제 교류 네트워크 추적을 위해서도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최근까지도 많은 연해주 한인들이 성터 내에서 거주한 흔적을 보여주는 유적이 있기도 하여, 발해 전후 시기부터 최근까지 한민족의 연계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연해주는 한국 근현대 역사와 매우 밀접한 지역이며, 특히 10세기 전후 발해사의 무대로, 현재까지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한·러 양국의 학술 교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 책은 연해주 지역 발해 고고학 유적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또 하나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꼭 읽어 볼만 합니다.





내몽고 중남부의 오르도스 청동기와 문화

Ordos Bronze Wares and Culture of South and Central Inner Mongolia



- 동북아역사재단 · 중국내몽고문화고고연구소 편
- 📖 국배판 📖 379쪽 📅 2007년
- 🔖 38,000원

ISBN 978-89-6187-006-1

내몽고 중남부에 위치한 오르도스는 중원 및 시베리아 남부 지역의 중간 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남북과 동서 두 지역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오르도스 청동기 문화는 중국 한부터 북위 때까지 그 지역 고유의 문화와 주변의 문화를 융합·흡수하여 발전했습니다. 상에서 서주 때까지의 북방 지역이었던 방국, 동주 때의 융·호·적, 한부터 위까지의 흉노와 선비 등 모두가 오르도스 청동기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르도스는 하가점하층과 함께 동아시아 청동기 문화의 시작이며,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오르도스 지역은 지역적 한계로 그동안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이에 그 연구도 활성화되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2005년 고구려연구재단(현 동북아역사재단)과 내몽고문화고고연구소가 공동으로 오르도스 청동기를 조사하여 기류와 기종 별로 집대성했고 기왕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들을 다량 발굴하여 학술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귀중한 유물 사진들은 이 분야에 생소한 사람들조차 눈을 떴기 힘들만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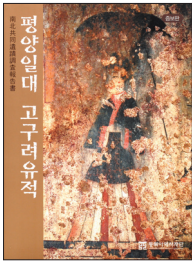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A Report on Joint Inter-Korean Archaeological Survey of Koguryo
Archaeological Sites in the Pyongyang Area



- 동북아역사재단 · 북한 사회과학원 · 문화보존지도국 편
- 국배판 ● 395쪽 ● 2007년
- 36,000원

ISBN 978-89-6187-007-8

고구려 고분벽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만큼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이나 실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고구려연구재단(현 동북아역사재단)과 북한의 사회과학원 및 문화보존지도국은 고구려유적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2005년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12일간 평양에 체류하면서 평양일대의 고구려유적을 공동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의 조사 내용을 수록한 책으로, 평양일대의 고구려유적을 비롯하여 백두산 정계비터까지 담겨 있습니다. 정릉사 8각우물터나 강서소묘 등이 최초로 소개가 되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에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던 안악 3호분과 태성리 3호분, 평양성 각석 등이 실제 모습 그대로 실렸습니다. 『평양일대 고구려유적』은 학술적으로 고구려사에 대한 남북학계의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남한에서 접하기 힘든 북한의 유적을 사진과 함께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평양의 고구려유적을 직접 조사 정리한 이 책은 고구려사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남북공동학술조사보고서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A Report on the Joint Inter-Korean Archaeological
Survey of Koguryo Anhak Palace



- 동북아역사재단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
사회과학원 · 문화보존지도국 편
- 국배판 ● 365쪽 ● 2007년
- 36,000원

ISBN 978-89-6187-0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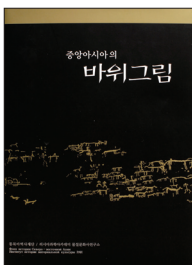
안학궁은 평양에 있는 고구려의 왕성 유적으로, 대동강과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대성산맥을 끼고 있는 방어 요새입니다. 안학궁은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의 중심지였다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접근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006년 고구려연구재단(현 동북아역사재단)은 정부와 북측 민족화해협회의회의의 도움을 받아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 및 문화보존지도국과 공동으로 2006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안학궁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성벽, 건물 터, 무덤, 기와에 대한 지표·측량·시굴 조사를 실시하여 안학궁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출토된 5~6세기 기와편과 유물들, 과거 북한에서의 연구 성과를 통해 안학궁은 고구려의 왕성이었음이 명백해졌으며, 단지 천도 이후 곧바로 축조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만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미해결 부분은 추후 우리 학계에서 풀어나갈 과제이며, 이 책은 이러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바위그림

Rock Paintings of Central Eurasia



- 동북아역사재단 편
- 국배판 365쪽 2007년
- 38,000원

ISBN 978-89-6187-018-4

바위그림은 바위의 표면에 물감을 칠하거나 바위 표면을 쪼거나 갈아 새겨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특히 선사시대에 그려진 바위그림들은 당시 제작 집단의 문화가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어 '선사시대의 책'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선사 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꼽히는 중앙아시아에는 바위그림이 풍부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카스코-미누신스크 지역 13곳과 투바 지역 10곳의 바위그림에 대한 각종 자료와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시적인 공간 속에서 중앙아시아의 바위그림을 조망했고, 선사시대 북방 유목민족의 문화가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한국까지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석기·청동기 시대의 바위그림이고, 우리나라 바위그림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하카스코-미누신스크 지역과 투바 지역의 바위그림을 집대성한 이 책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바위그림의 실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범위를 넓혀 북쪽의 산지 알타이와 바이칼 주변, 서북쪽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 동쪽으로는 연해주 일대, 좁게는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과 옛 만주 그리고 한반도의 바위그림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cavation Reports and Catalog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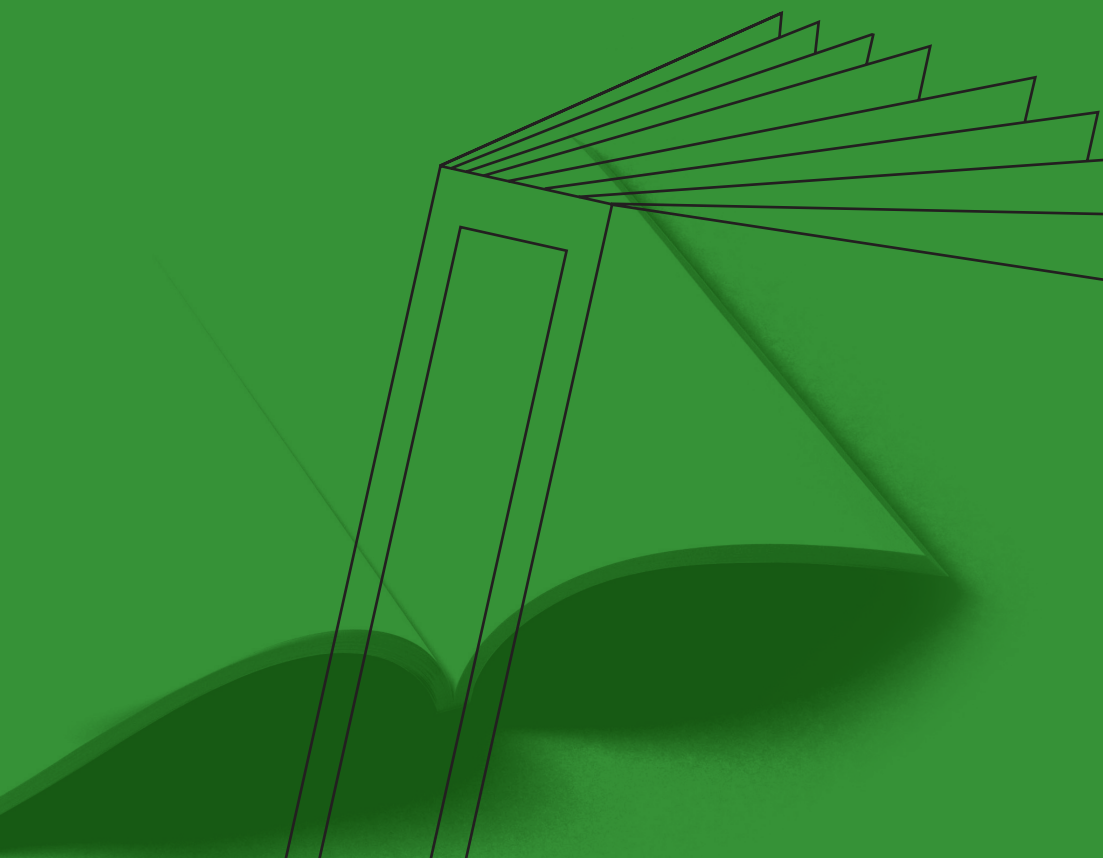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pecial Research Projects

한

한·중·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경제적·정치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역사적 인식의 차이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고대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계의 자세를 늦추어서는 안 되며, 중·장기적인 분석과 대응 방향 수립이 필요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는 시의 적절하고, 논란 중인 주제들을 선정하여 국내 외 저명인사들의 분석과 전망을 수록했습니다. 일본의 우익 연구, 중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분석, 한국고대사 연구 현황과 왜곡 실태 파악, 유럽 국가들 간의 공동교과서 개발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 모색 등이 대표적 주제라 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를 통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문제가 현재의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바람직한 대응방향은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pecial Research Projects

기획연구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The Japanese Right Wing of Yesterday and Today



허동현 외 신국판 345쪽 2008년 12,000원

국민통합을 강화하는 국가주의적인 움직임에 맞추어 일본 우익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 우익의 전체상을 역사적으로 재검토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21세기 일본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전망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우익을 학문적·체계적으로 연구한 이 책을 통해 우익의 역사적 연원과 흐름 그리고 현재적 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042-9



부여사와 그 주변

History of the Buyeo and Its Peripheries



윤용구 외 신국판 259쪽 2008년 10,000원

중국학계는 오늘날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고조선·부여·고구려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증적 반박을 위해 부여사와 관계된 핵심적인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부여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국내 어느 책에서도 다루지 못한 부여사를 주제로 삼아 문헌사료와 함께 고고학적 유적·유물 자료를 총망라한 최고의 부여사 기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BN 978-89-6187-043-6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Perceptions on the Neighboring States in History Textbooks of East Asia



연민수 외 신국판 241쪽 2008년 10,000원

역사교과서에는 자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 내용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각국은 보편주의적 역사의식의 공유에 있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등의 역사교과서 전문가들이 자국의 역사교과서를 분석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교과서를 집필해야 하는가를 제시했습니다.

ISBN 978-89-6187-044-3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Territorial and Historical Conflicts in Europe



김승렬 외 · 신국판 · 375쪽 · 2008년 · 14,000원

지난 몇 년 동안 동북공정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쟁은 우리의 논의 지평을 좀 더 넓혀야 하며 민족주의 문제에 대해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요구에 대한 답변을 수록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유럽 각국의 영토와 국경 분쟁, 이를 둘러싼 역사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동아시아라는 제한된 시각에 갇힌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넓고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ISBN 978-89-6187-045-0



함께 쓰는 역사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역사교과서 개선 활동

Franco-Germ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History Textbook Projects



이용재 외 · 신국판 · 355쪽 · 2008년 · 13,000원

유럽은 우리보다 앞서 영토 분쟁과 역사이해에 대한 문제로 첨예하게 대답해 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 해결 과정과 노력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총 2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먼저 독일과 프랑스 관계사를 개괄적으로 다뤄 양국 관계사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1930년대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교과서 개선활동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ISBN 978-89-6187-046-7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

독일·폴란드 역사 화해의 길

Process of German-Polish Historical Reconciliation



한운석 외 · 신국판 · 399쪽 · 2008년 · 16,000원

우리가 독일-폴란드 교과서 대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체제와 국력, 관심의 현저한 차이를 넘어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여 26개 항목의 공동 권고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냈으며, 그 후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역사적 화해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랜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역사 화해의 길을 개척한 독일과 폴란드의 사례 연구는 우리의 역사교과서 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희망적 예시가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047-4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Comparison of History Textbooks in China, Taiwan and Hong Kong



● 임상선의 외 ● 신국판 ● 349쪽 ● 2008년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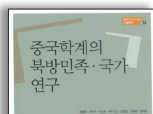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국가 주도의 「역사교과서대강」에 의거하여 편찬되어 오다가 「역사과정표준」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역사교과서가 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 발전과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중국 교과서의 현대 한국에 대한 서술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중국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타이완과 홍콩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비교·검토했습니다. 입수가 안된 몇몇 교과서가 있지만, 우리나라 관련 서술내용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055-9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The Chinese Research on North Asiatic Peoples and States



● 정병준 외 ● 신국판 ● 513쪽 ● 2008년 ● 16,000원

고구려와 발해가 멸망한 후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는 한반도 안으로 한정되었지만, 그들이 활동한 지역과 그곳의 문화는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중국은 지금의 중국 강역을 넘어 역사상의 귀속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구려와 발해 유민들의 행방과 뒤이어 출현한 민족이나 국가에 관한 중국학계의 연구 상황 및 관련 유물·유적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만주지역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056-6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

Korea and Korean History in College History Textbooks of China



● 신주백 외 ● 신국판 ● 529쪽 ● 2008년 ● 18,000원

중국의 중국사, 세계사 교재에서 한국에 대한 역사 기술은 중국문화의 전파와 영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정서를 심어주는 교재로서 부족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도 막연히 장기적인 전망을 갖기 보다는 전략적인 기획과 꾸준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중·일 역사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중간 역사교과서 대화에 앞서 서로가 가진 문제점과 역사인식은 어떠한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가를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063-4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the Sovereignty over Dokdo, Korean Island



● 배진수 외 ● 신국판 ● 313쪽 ● 2009년 ● 13,000원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대하여 우리는 보편적 기준과 가치를 존중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널리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지리·국제법·국제정치학 등 학제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전히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존재와 학파 또는 학맥 간 대립으로 학제적 연구에 한계가 남아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ISBN 978-89-6187-091-7



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

Studies on the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Japanese Empire



● 박수철 외 ● 신국판 ● 329쪽 ● 2009년 ● 13,000원

천황의 존재를 절대시하고 일본 국가와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황국사관'이 궁극적으로는 일본 민족의 우월감을 바탕으로 타민족에 대한 억압과 동화, 차별과 멸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인식의 사상적 배경을 역사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 책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황국사관'에 대한 연구현황과 인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점을 바탕으로 '황국사관'이 일본사의 각 시대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오늘날 일본의 역사인식에 어떤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ISBN 978-89-6187-099-3



고구려 왕릉 연구

The Study of Royal Mausoleums of Koguryo



● 강현숙 외 ● 신국판 ● 395쪽 ● 2009년 ● 14,000원

이 책은 집안지역의 고구려 왕릉뿐 아니라 평양지역 그리고 고구려 멸망 후 중국에 조성된 고구려 왕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책은 집안 지역의 왕릉 비정을 위해서는 졸본에서 국내로의 천도시기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국내로의 천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현재의 연구결과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현재까지 진행된 고구려 왕릉 연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동시에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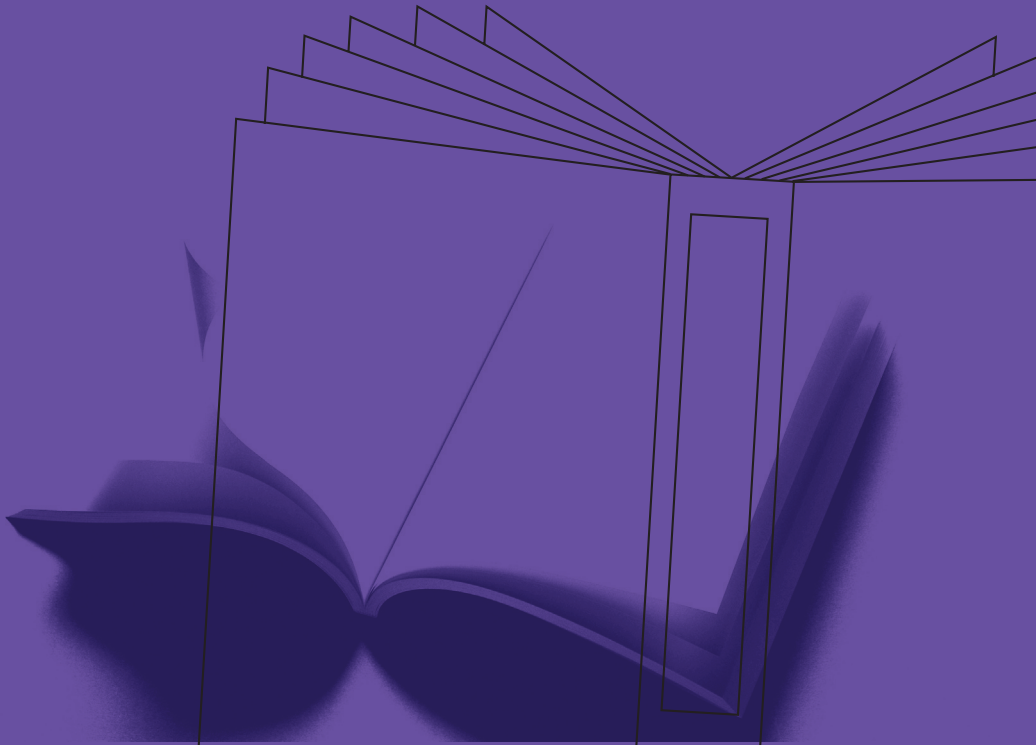
ISBN 978-89-6187-110-5



동북아 지역의 역사문제는 오랜 세월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한·중·일 간의 역사 갈등과 영토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 이에 관한 꾸준한 연구와 이해가 더욱 절실히 요청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는 다양한 역사분야의 연구 활성화와 동북아시아 역사화해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모아 발간한 것입니다. 학계의 여러 우수한 연구로 구성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올바른 관계 구축을 위한 재단의 노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영토·역사 갈등의 해소와 역사학계의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search Series

연구총서





20 낙랑 문화 연구

A Study of Nangrang [Lo-lang] Culture



이남규 외 신국판 395쪽 2007년 12,000원

우리나라 고대국가 형성과정에 있어 낙랑의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사인식은 제각각이며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최근 낙랑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행해지고, 문헌사학이나 고고학 분야에서 양적·질적으로 연구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낙랑에 대한 문헌사학적 연구와 고고학적 연구를 종합하여 낙랑 내부뿐만 아니라 중국 및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보여지는 낙랑과의 관련성 등을 다루었습니다.

ISBN 978-89-6187-019-1



21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Ancient East Asian World-system Theory and Koguryo's Identity



박대재 외 신국판 253쪽 2007년 9,500원

역사에 경계를 부여하게 되는 일차적 동기는 정치로, 정치사에서는 관념적이든 실질적이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또 다른 요소, 특히 문화에서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고구려의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중국과 다른 맥락과 코드가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일의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편향적 시각을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 전체 속에서 고구려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ISBN 978-89-91448-93-3



22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둥 불상

Buddhist Sculptures of Koguryo and the Shandong Province of China



양은경 외 신국판 221쪽 2007년 9,000원

고구려는 한반도와 중국에 걸쳐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 문화 또한 다양하고 국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적 한계로 인해 고구려 유적에 대한 연구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이 책은 중국 산둥 지역에 있는 불상과 고구려의 불상을 최초로 비교 연구한 문화사 책입니다. 남북조부터 당대까지의 불상을 비교함으로써 고구려 불상의 우수성과 독특함을 정리했습니다.

ISBN 978-89-91448-92-6



23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East Asian Perceptions on Ocean Trade and Embargo



장동익의 신국판 273쪽 2007년 10,000원

21세기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인식과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경향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역사전쟁’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교류와 교역의 역사를 하나의 공통된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객관적인 ‘국제관계사’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 책은 북방과 남방에서 전개된 국제관계를 한국사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동아시아해’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달라 분쟁의 소지가 큰 문제에 관해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ISBN 978-89-91448-95-7



24 아시아의 발칸, 만주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

The Balkans of Asia: Manchuria and Western Imperialism



백준기의 신국판 207쪽 2007년 9,000원

한반도와 만주문제는 1895~1904년의 중요한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운명을 가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궁극적으로 만주문제로 집중되며 한반도의 운명은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9세기 만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영국과 러시아,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의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현재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새로운 시각에서 만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치·국제적 시각을 갖고 접근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ISBN 978-89-91448-97-1



25 발해 5경과 영역 변천

The Five Capitals of Balhae and Territorial Changes



한규철의 신국판 285쪽 2007년 10,000원

발해는 우리의 잃어버린 영토라는 막연한 향수를 자극하거나, 고구려와의 연관성만을 강조하는 역사서는 발해에 대한 문헌적·고고학적 자료가 빈약하고 논리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이 책은 발해 5경제의 연원, 수도천도와 지방편제를 통한 영역의 확대·변화, 발해 교통로에 설치되었던 24개돌유적과 발해 궁궐유적을 통해 당시 발해 사회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ISBN 978-89-91448-94-0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Historical Geography of the Modernization Process in Manchuria



유지원 외 신국판 299쪽 2007년 10,000원

만주는 청조에 의해 배도(陪都)가 되었으나 봉금정책으로 인해 지형학적 주변성을 면하지 못하다가, 근대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탈 과정에서 중심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후 군벌지배시기와 일본의 점령시기를 거치면서 주변성과 중심성이 융합된 전형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시형태학적 방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역사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고 만주 전체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ISBN 978-89-91448-96-4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Territorial Conflicts over Islands and Sea Boundaries in the 19th Century Northeast Asia



조세현 외 신국판 307쪽 2008년 10,500원

19세기 동아시아가 전통적인 해금(海禁)의 시대에서 개국(開國)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국은 본격적인 해양 경쟁을 시작했고, 바다와 섬을 둘러싼 그 분쟁은 19세기를 이어 현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근대 동북아 해양에서의 해양 월경과 어업 분쟁을 비롯한 도서 분쟁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싼 국제 관계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선례를 제공했습니다.

ISBN 978-89-6187-029-0



근대 중국 대외무역을 통해 본 동아시아

Chinese International Trade and Modern East Asia



박정현 외 신국판 219쪽 2008년 9,000원

이 책은 근대 이후 전통 무역 체제가 근대 무역체제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아시아 교역권론'을 실증적으로 검토했으며, 무역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고, 무역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교역권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함께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무역이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ISBN 978-89-6187-034-4



31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립 청일전쟁에서 한국전쟁까지

Conflict and Confrontation in Northeast Asia: From the Sino-Japanese War to the Korean War



이재훈 외 신국판 231쪽 2008년 9,500원

이 책은 삼국간섭 전후 러시아의 부상과 일본의 대응, 러일전쟁과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 중일전쟁기 중국의 전시외교정책,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에 투영된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립이라는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의해 형성된 국제질서에 대한 역사적 성찰은 현재의 동북아시아가 안고 있는 갈등과 대립의 기원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규정하고 추종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를 가집니다.

ISBN 978-89-6187-035-1



32 중국 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Narratives on the Minorities' History Written by the Chinese Scholars in China



이평래 외 신국판 205쪽 2008년 9,000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특히 한국 처럼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자신의 선조들이 나라를 세운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도 그곳에 동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러한 자국 중심주의적 역사 인식은 역사 서술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져 이해 당사국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책은 중국 학계의 민족사와 소수민족사 서술 체계를 분석하고,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중국 정부의 민족 정책과 대내외정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ISBN 978-89-6187-067-2



33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The Research of Qingshigongcheng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정해중 외 신국판 313쪽 2008년 9,000원

21세기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사판찬작업은 최근 동북공정과도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려할 만합니다. 중국이 계속 청사연구에 매진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적 통치기반을 다민족 국가가면서 최대 영토를 실현시켰던 청대에 두려고 하는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 '청사공정'의 목적과 의도를 한층 더 명확하게 하고, 한국에서 청사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검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과 대안 모색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ISBN 978-89-6187-068-9

34

다민족 국가의 통합정책과 평화정착의 문제

독일과 유럽의 역사가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동북아의
현 상황에 주는 시사점

The Integration Policy of the Multi-ethnic Nation and the Question of the Peace



● 노명환 외 ● 신국판 ● 177쪽 ● 2008년 ● 9,000원

이 책은 독일과 유럽의 불행했던 역사 그리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유럽통합의 역사를 분석·소개하면서, 이를 교훈으로 삼아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고구려사 왜곡의 문제점과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역사 갈등과 화해를 경험한 유럽 현대사의 경험을 타산지식으로 삼아 동아시아 공동의 대의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이끌어내는 틀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ISBN 978-89-6187-070-2

35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A Study of Liaodong and Xuantu Commandery



● 서영수 외 ● 신국판 ● 285쪽 ● 2008년 ● 12,000원

요동군과 현도군은 중원 왕조의 동북방 진출 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고구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었던 군현으로 한·중 간의 역사적 대립이 시작되었던 점점입니다. 특히 양군은 고조선이 붕괴된 뒤 중원왕조의 변군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사의 발전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현지답사와 관련 문헌 수집을 통해 요동, 현도군의 역사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으며, 한국사와 중국사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이후 한국현 연구와 고조선 및 고구려의 국가적 성장 등 한국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071-9

36

러시아의 민족정책과 역사학

The Nationality Policies and Changing Historiography in Russia



● 박상철 외 ● 신국판 ● 209쪽 ● 2008년 ● 10,000원

소련은 광활한 영토에 수많은 소수민족이 거주했고 그런 수많은 소수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억누르면서 통합된 국민, 즉 '소비에트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국과 비슷합니다. 소수민족정책과 역사학에 관한 소련의 역사적 경험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관련 정책에 모범적 사례로서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중국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할 것입니다.

ISBN 978-89-6187-072-6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New perspectives on the Okcho (Wuju) people based on newly found archaeological materials from Maritime Region of Russia and Neighbouring regions



강인욱 외 신국판 289쪽 2008년 12,000원

한국 고대사의 범위가 현재 한국의 국경에 국한되지 않은데다 동북한 지역의 여러 민족에 대한 연구는 각국의 자료를 숙지하지 못하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그동안 소외되어온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환동해지역(연해주~한국)에 대한 연구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형성과정을 살펴 옥저 고고학 연구에 객관성과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ISBN 978-89-6187-079-5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The Foreign Legations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Opening Ports



하원호 외 신국판 321쪽 2009년 14,000원

이 책은 개항기 한국에 설치되었던 6개국(일본·중국·미국·영국·러시아·독일) 공관의 활동과 성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개항기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한국 관련 외교관계 자료와 한국 측 자료를 토대로 주한 외국공관의 구조와 외교사절의 활동 및 인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개항기 열강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그로 인한 한국사회의 변동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ISBN 978-89-6187-081-8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Japanese Colonial Rule and "Colonial Modernity"



정태현 외 신국판 363쪽 2009년 15,000원

이 책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던 시기의 일제 식민통치방식과 식민지사회의 특징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식민지사회의 특징과 관련하여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불리기도 하는 경제성장론, 식민지상의 인력개발론, 식민지 인식, 생활수준 향상론, 근현대사 인식을 분석했고, 식민지시대의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과 개별기업의 책임에 관해 밝힘으로써 식민지시대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080-1



40 유엔에서의 영토문제 논의현황과 사례분석

Territorial Problems in the United Nations : Issues and Cases



● 김학린 ㉠ 신국판 ㉡ 210쪽 ㉢ 2009년 ㉣ 9,000원

역사적으로 유엔은 영토문제를 포함한 국제분쟁을 단순히 법적 해결에 의존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제반 관련사항을 고려하고 다양한 분쟁해결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을 선호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토문제 해결에 관한 국내 연구는 국제법 일반원칙에 입각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법적 해결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접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책은 영토문제가 유엔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유엔의 정치적 기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ISBN 978-89-6187-083-2



41 근현대 일본의 한국 인식

Japanese Perceptions of Korea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 김광열 외 ㉠ 신국판 ㉡ 135쪽 ㉢ 2009년 ㉣ 8,000원

이 책은 한일 관계의 한 축인 일본사회에 초점을 두고, 20세기 초에서 현재까지 일본이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1900년대 초 일본에서 출간된 조선 관련 서적들을 분석하고,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등의 소송'과 일본의 드라마를 통해 일본의 한국인식을 살펴보았습니다.

ISBN 978-89-6187-086-3



42 중국의 '지역문명 만들기'와 역사·고고학자료

Invention of Local Culture: Utilization of

Historical and Archeological Sources



● 김병준 외 ㉠ 신국판 ㉡ 208쪽 ㉢ 2008년 ㉣ 9,000원

중국 측이 촉발한 역사 논쟁의 저변에 깔려있는 복잡한 지형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역사 빼앗기' 혹은 '영토분쟁의 일환'이라는 식보다는 전 중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것이 '지역문명 만들기'라는 전국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규명했으며, 그 속에서 중국의 일련의 역사 프로젝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ISBN 978-89-6187-087-0



43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사상

'일본 중심적 세계관' 생성의 시대적 고찰

Japanese Thought in East Asian World



● 김현구의 ● 신국판 ● 273쪽 ● 2009년 ● 13,000원

일본을 세상의 중심에 놓고 싶어하는 일본인들의 시도는 항상 한반도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인들이 일본을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는 의도가 갖는 본질적 의미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일본 중심주의'의 실태와 이념을 통시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책에서 살펴 본 '일본 중심주의'는 단순히 일본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넘어 한반도와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088-7



44 하상주단대공정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허와 실

The Xia-Shang-Zhou Chronology Project: Truth and Falsehood in the Studies of Ancient Chinese Civilization



● 심재훈의 ● 신국판 ● 207쪽 ● 2008년 ● 9,000원

이 책은 중국의 하상주단대공정 결과물 발표 이후 제기된 비판들을 토대로 한국학자들의 시각으로 단대공정을 분석한 것입니다. 하상주단대공정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각종 검증내용을 분석했는데, 그 내용은 많은 세부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 프로젝트의 주요 주제인 고고학 문화 분기나 연대측정, 천문역법 등 개별 연구들은 비록 아직 완전히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저변 확대와 자료 집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ISBN 978-89-6187-089-4



45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Changes in Ancient Civilization and Groups of Inhabitants in the Basin of Liaohe River



● 송호정의 ● 신국판 ● 281쪽 ● 2008년 ● 13,000원

중국 동북지역은 연산산맥을 경계로 중원지역과 구분되며, 대흥안령 이북의 초원 지역과도 다른 지리적 환경을 지녔습니다. 선사 이래 중국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으며 한반도와는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한국 고고학의 연구영역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재 중국의 통치영역에 속해 있어 중국학자에 의해 조사와 연구가 주도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그동안 중국학계에서 중국 동북지역 일대를 새로운 문명의 기원지로 주장한 내용을 분석하고 실증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ISBN 978-89-6187-096-2



중국 문명탐원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A Critical Review of the Exploration of the Origin of Chinese Civilization Project



박양진 외 신국판 267쪽 2008년 12,000원

중화문명탐원공정은 국가적인 연구과제로서 중국문명 기원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가 주도적 연구가 수반하는 여러 가지 학문 외적 제약의 존재와 중국 고대사 및 고고학계의 학문적 한계의 노출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화문명탐원공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다시 지속될 것인지 우리 학계가 계속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 책은 이에 대한 첫 시도가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098-6



근대 한·일 간의 상호 인식 Perceptions of the Other between Korea and Japan in Modern times



권태억 외 신국판 340쪽 2009년 13,000원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어 왔으며, 지금도 양자의 관계는 날로 깊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과거사에 대한 상반된 또는 인정하기 어려운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제 식민지기에 대한 인식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역사인식을 구축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역사적으로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발달해온 한일 관계의 역사적 국면들과 그에 대한 인식, 그 오류의 극복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ISBN 978-89-6187-107-5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The Political Strategies by Korea, China and Japan during the Sino-Japanese War



왕현중 외 신국판 505쪽 2009년 15,000원

이 책은 한·중·일 삼국에서 지금까지 각국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청일전쟁 상을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변화라는 틀로 재조명한 것입니다. 조선과 중국, 조선과 일본 그리고 일본과 중국, 일본과 조선 민중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상호관계를 바라보았으며, 특히 동아시아 민중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다초점의 연구 방식은 앞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다루는데 하나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17-4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Research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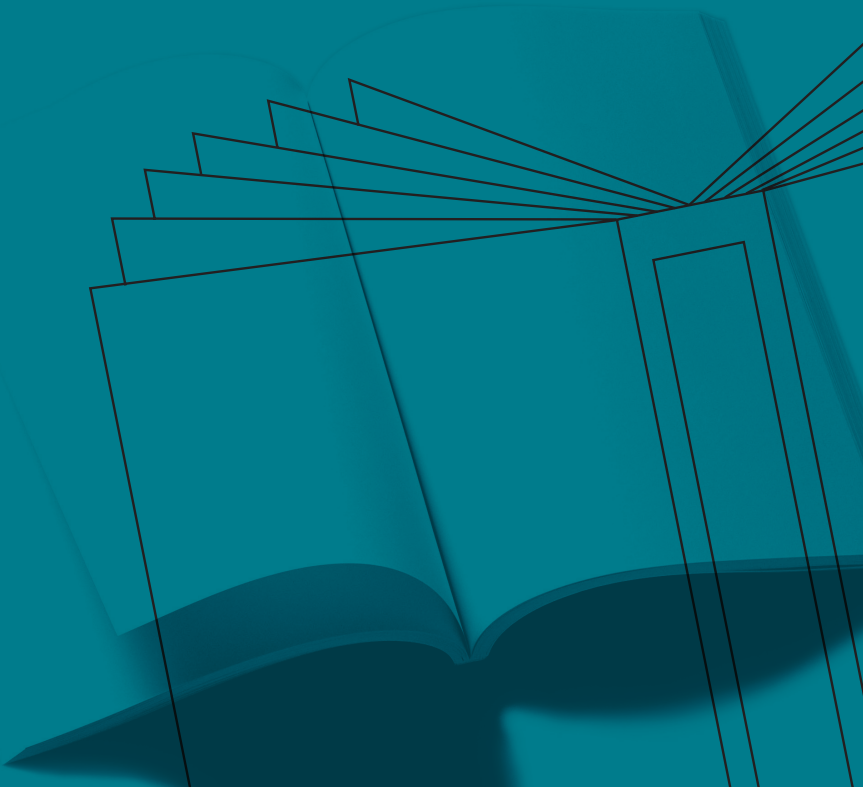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ublication List

序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며, 역사는 또 다른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항상 새롭게 다시 쓰여지며, 따라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역사는 더 이상 전문지식이 아니고 학교에서만 배우는 따분한 암기과목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이며, 내가 살아갈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의 역사책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담기보다는 사실만을 나열하고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교양서들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만주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설서 한 권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면서,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기획하여 집필했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함께 검토하여 흥미로운 주제를 골라 전문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풀어냈습니다. 현지를 직접 답사하며 찍은 최신 사진과 다양한 읽을거리들은 우리의 역사 인식 폭을 넓히고 시야를 한반도 너머 저 대륙까지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역사를 보다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일반인, 교양을 높이하고자 하는 대학생, 논술을 준비하는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알찬 지식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ooks for General Rea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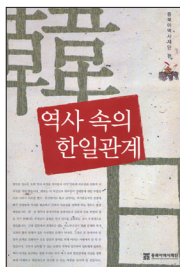
교양서





역사 속의 한일관계

Korean-Japan Relations in History



- 동북아역사재단 편
- 신국판 335쪽 2009년
- 12,000원

ISBN 978-89-6187-1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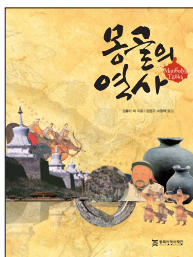
이 책은 한일관계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한일관계사의 쟁점뿐만 아니라 같은 사안에 대한 한일 학계의 서로 다른 시각까지도 비교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근현대 부분에서는 오늘날의 역사 인식 문제와 직결되는 역사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여러 정치적 과정과 식민지 경험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의 동반자로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발전해 왔는가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며, 한일 역사 현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몽골의 역사

History Textbook of Mongol



강철가 외 지음, 김장구·이평래 옮김

46배변형 459쪽 2009년

17,000원

ISBN 978-89-6187-123-5

이 책은 몽골의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몽골사' 교과서를 번역한 것으로, 기존의 몽골사와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로 중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해해왔던 몽골인의 모습은 안정된 정착세계를 위협하는 '야만인'의 모습으로만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인이 세계사에 남긴 흔적은 아주 다양합니다. 흉노의 서천은 유라시아의 역사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제국을 형성했던 투르크인의 서진으로 중앙아시아의 투르크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중앙아시아는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서쪽 원정으로 유라시아의 통합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 어떤 이는 몽골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세계사'를 창조했다고도 합니다. 이 책은 중국인이 아닌 몽골인의 시각에서 중앙유라시아 전역의 통사를 다루고 있으며, 이들의 정신세계까지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았던 중앙유라시아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찾아서

In Search of Koguryo



동북아역사재단 편
 46배변형 224쪽 2009년
 12,000원

ISBN 978-89-6187-0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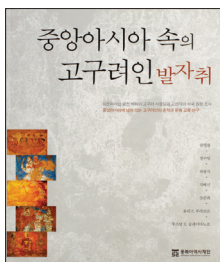
답사는 역사의 현장을 찾아 떠나는 탐구의 여행이자 책에서 배운 지식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답사 여행은 글자와 그림으로 이해되던 역사를 살아 숨 쉬는 것으로 바꾸어 주며, 눈과 마음으로 역사를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역사 유적의 유래와 의미를 알려주는 안내서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보람있는 답사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고구려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돕기 위한 답사책입니다. 중국에서는 동북 지방, 우리에게만은 만주라는 이름이 익숙한 그곳은 고구려가 나라를 세우고 발전의 기틀을 다졌던 곳입니다. 고구려의 첫 출발부터 성장 그리고 스러져갔던 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최적의 답사지라 할 수 있습니다. 환인과 집안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곳으로, 환인과 집안에서 꼭 둘러보아야 할 주요 유적들을 소개했습니다. 기록에 전하는 각종 일화와 관련 해석을 달았습니다. 지도와 답사코스도 나와 있어 손에 들고 다니며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인근의 유적소재지를 가늠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행의 시간 시간이 고구려와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Footprints of the Koguryo People in Central Eurasia



- 지배선 외
- 46배변형 423쪽 2008년
- 19,000원

ISBN 978-89-6187-026-9

고구려는 한반도와 중국까지 그 영토 범위를 넓혔고, 중앙아시아로까지 그 교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프라시아(Afrasiab) 궁전벽화의 고구려 사절도와 고선지(高仙芝)의 석국(石國), 타슈켄트원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책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구려 관련 유적을 직접 답사하고 쓴 문명교류 연구서입니다. 이 책에는 고선지 장군의 석국원정,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보이는 고구려 사절 그리고 고구려와 서역의 문화교류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인의 발자취를 문명교류사 입장에서 바라보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존 책들과 차별화되며,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하여 고구려인의 중앙아시아 문명교류와 그 문화에 끼친 영향을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고조선·단군·부여

Old Joseon, Dangun, and Buyeo



- 동북아역사재단 편
- 신국판 ● 182쪽 ● 2007년
- 12,000원

ISBN 978-89-6187-0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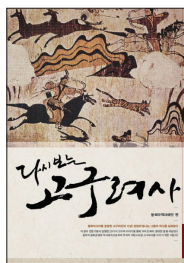
고조선·단군·부여는 반만년의 웅대한 기상을 품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지만, 우리의 관심에서 떨어져 신화로 치부되기 일쑤고, 변변한 역사서 한 권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조선·단군·부여는 한국사와 한국 민족, 한국 민족문화의 출발점이자 연결고리로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 위급 시 우리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의 연구 성과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이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그동안 잊혀 왔던 고조선·단군·부여 역사의 시작을 실증적 고증을 통해 밝혔고, 다양한 연구 성과와 관련 자료들을 담아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대변되는 역사 왜곡 속에서 고조선이 왜 우리의 역사이고 어떠한 의미인가를 살펴 보았으며, 단군 신화 속에서 역사 읽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과 고구려를 연결하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대목인 부여의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다시 보는 고구려사

Koguryo History Revisited



- 동북아역사재단 편
- 신국판 258쪽 2007년
- 14,000원

ISBN 978-89-6187-002-3

고구려는 우리 민족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국가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패기가 넘쳤으며 넓은 영토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국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역대 왕조와 당당하게 맞서 대응하며 우리 민족을 수호한 자주적인 국가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시아를 호령한 고구려인의 기상과 그들이 이룩한 빛나는 역사는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을 주는 원천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구려사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올바른 이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고구려 역사·문화 관련 종합 교양서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최고의 한국 고대사 전문가들이 고구려 역사의 전개 과정과 사회상, 문화 성격 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제를 골라 쉽게 기술한 점이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 서적이면서도 학술 서적의 성격까지 복합적으로 띤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고구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 기억 속의 고구려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The Politics and Society of Koguryo



- 동북아역사재단 편
- 46배판 341쪽 2007년
- 24,000원

ISBN 978-89-6187-015-3

고구려 역사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말 광개토대왕릉비가 발견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근래의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고구려가 갖는 역사적인 위상에 따른 결과입니다. 고구려는 건국 후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주변의 여러 종족과 국가들을 고구려 영역 내로 편입시켰으며, 한반도 북부와 요동, 남만주 일대에서 중국 군현들을 축출하고 전연·후연과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기에는 양측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국을 견제하는 등거리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넓은 영토와 그 안에 다수 종족을 거느렸으며,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물론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교류하여 독자적이면서도 국제성이 풍부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책은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에 관해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쉬운 설명과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했으며, 최근의 연구성과를 집성하여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학문적 비판을 시도했습니다.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The Culture and Thought of Koguryo



- 동북아역사재단 편
- 46배판 493쪽 2007년
- 26,000원

ISBN 978-89-6187-016-0

고구려는 700년 이상 존속했으며, 한반도 북부와 만주 남부의 광활한 지역을 차지 했는데 무(武)에 못지않게 문(文)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문화는 개방적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중국, 서북쪽으로는 유목 민족 등 문화 계통을 달리하는 여러 세력들과 경계를 맞대면서 적극적·능동적으로 외래문화를 수용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사마르칸트에까지 사절을 파견하고, 불교와 유교를 배우려고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으며, 많은 외국인들을 자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의 문화를 포용하여 독자적인 고구려 문화로 발전시켰음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개방성과 국제성은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고구려의 종교와 사상을, 2부에서는 고구려의 사회와 문화를, 3부에서는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을 서술하여 그동안 축적된 고구려 고고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총망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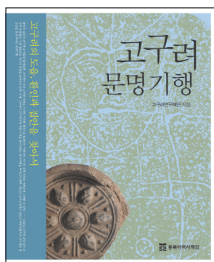




고구려 문명 기행

고구려의 도읍, 환인과 집안을 찾아서

A Cultural Travel Guide: Koguryo's Ancient Capitals of
Jolbonseong (Huanren) and Gungnaeseong (Jian)



- 동북아역사재단 편
- 46배변형 282쪽 2007년
- 15,000원

ISBN 978-89-6187-005-4

고구려의 첫 도읍으로, 압록강 중류 지역에 위치한 환인은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와 나라를 세운 곳이며, 부족 국가에서 중앙집권국가로 발돋움하던 고구려의 중심지였습니다. 얼마 후 고구려는 집안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더욱 역동적인 역사를 이어갑니다. 광개토태왕 시기의 강성했던 고구려가 집안을 수도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곳이 고구려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환인과 집안에는 그저 둘러만 보기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고구려 유적들이 남아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답사하고 있으나 전문적 안내서가 없기 때문에, 귀중한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고도 정작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요 유적들을 골라, 각 유적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고 자세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답사하고 확인한 내용을 기술했기에 생생한 느낌이 더욱 진하게 전해져 올 것입니다. 이외에도 관련된 역사적 사실까지 함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문명을 진지하게 기행할 수 있습니다.



만주-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Manchuria: Land, People, and History



- 동북아역사재단 편
- 신국판 ● 264쪽 ● 2007년
- 14,000원

ISBN 978-89-6187-004-7

‘만주’라는 말은 원래 민족 명칭이었지만, 근대 이래 만주족이 살던 곳이라는 의미에서 지역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늘 북방민족의 활동 무대였으며, 이곳을 기반으로 흥기한 북방민족들은 한반도 및 중국 대륙을 넘어 유럽까지 세력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만주는 북방민족의 요람이자 고구려·발해·조선의 땅이었으며,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전쟁의 근원지이자 현재 조선족의 영토로써 우리 민족과 불가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만주는 우리의 현재를 비롯하여 미래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역할은 향후 한·중 관계나 통일후 한반도의 위상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만주는 동아시아 각국은 물론 한반도와도 역사·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북아시아 역사의 각축장이 된 만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습니다. 국내외의 14명의 전문가가 집필한 만주의 역사 이야기는 한반도라는 지역의 범위와 시간을 뛰어넘어 만주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만주라는 곳의 역사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된 만주의 역사·지정학적 특성과 위상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본 발해사

A New History of Balhae



- 동북아역사재단 편
- 신국판 ● 261쪽 ● 2007년
- 14,000원

ISBN 978-89-6187-0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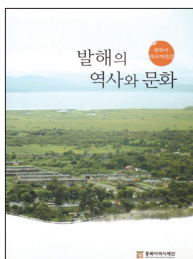
고구려를 계승한 해동성국(海東盛國) 발해는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거느리며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이룩했습니다. 고구려의 뒤를 이어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우뚝 선 발해의 역사는 한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해는 고조선-고구려-신라·발해로 이어지는 한국 역사의 계보를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사 교과서에서도 남북국 시대로 설정하여 남쪽의 신라와 함께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해 영토의 대부분은 현재 남의 땅이 되어버렸고,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발해 역사 관련 교양서조차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발해의 역사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졌고 잊혀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발해가 주민 구성, 역사적 계승성, 문화 등의 모든 면에서 한국사의 중요한 축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발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 11명이 함께 집필했습니다. 특히 발해는 그 영역이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고 중국, 러시아에까지 걸쳐있었으며,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 외에 중국·러시아·일본의 발해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발해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를 알려 주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발해의 역사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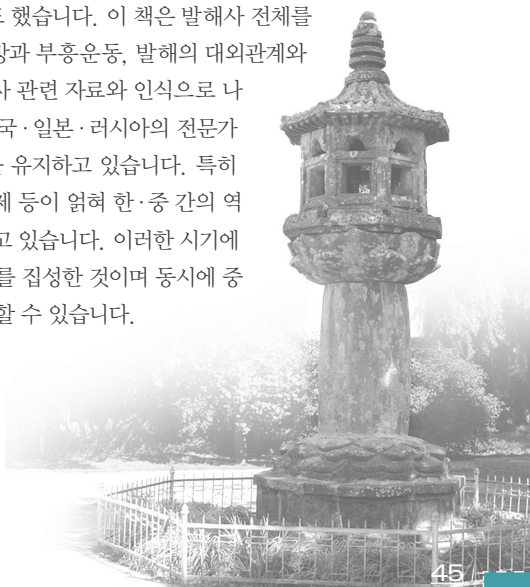
The History and Culture of Balhae



- 동북아역사재단 편
- 46배판 ● 479쪽 ● 2007년
- 26,000원

ISBN 978-89-6187-017-7

발해는 698년 고구려 유민의 부흥 의지와 당시의 국제 질서를 이용해 탄생한 왕조입니다. 228년간 지금의 북한 지역과 중국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일부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 남부에 걸쳐 번영했는데, 이는 고구려의 약 1.5~2배, 신라의 약 3~4배에 이르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강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으며,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국'으로 자칭했고, 당나라를 침공할 만큼 국가 운영은 자주적이었습니다.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를 비롯한 그 지역의 토착 문화 위에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변영과 부흥의 결과 당으로 부터 '해동성국'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발해사 전체를 발해의 건국, 발해의 변천과 융성, 발해의 멸망과 부흥운동, 발해의 대외관계와 제도, 발해의 사회·경제, 발해의 문화, 발해사 관련 자료와 인식으로 나누어 기술했습니다. 특히 한국학자 외에도 중국·일본·러시아의 전문가도 참여하는 등 학문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해사의 민족사적 계승 문제나 국경 문제 등이 얽혀 한·중 간의 역사 갈등 문제로 발해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간행된 이 책은 국내 학계의 발해사 연구성과를 집성한 것이며 동시에 중국의 발해사 왜곡에 대한 학문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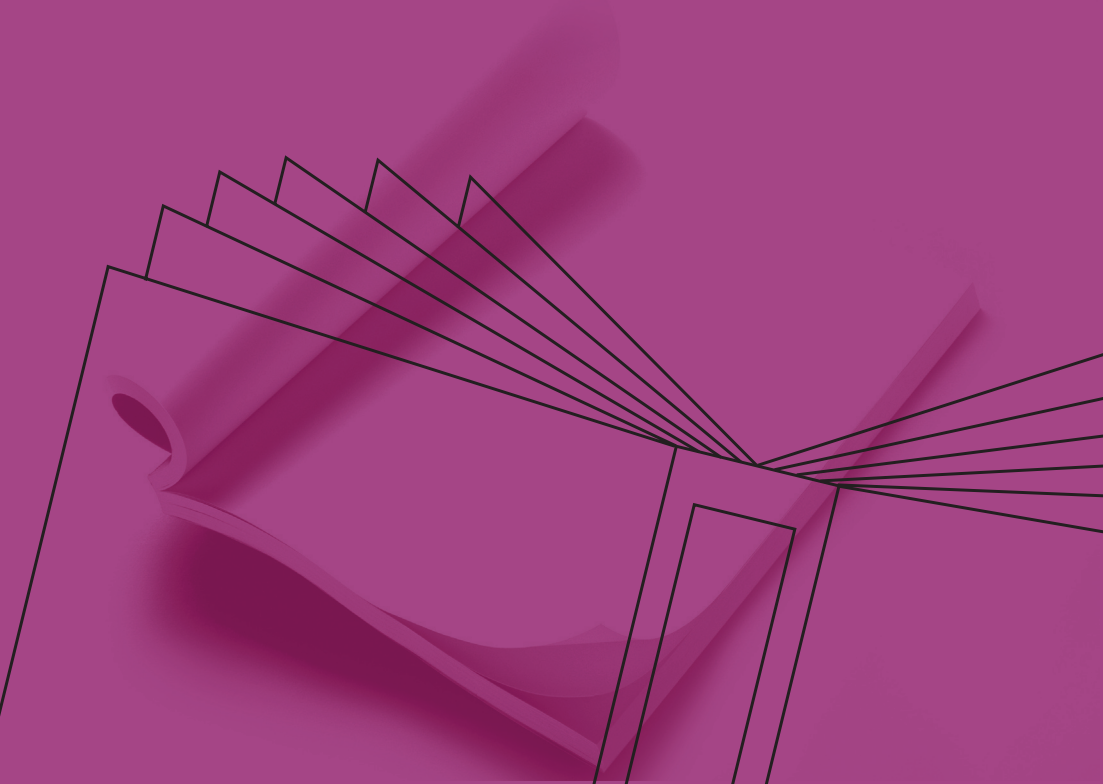


序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변국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교류의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고 있으며, 그 영향 또한 지대합니다. 역사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의 역사였던 것이, 다른 나라 사람의 시각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은 각자가 처해진 입장이나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관점을 살피고 이를 검토·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다 더 단단히 하고 논리적 근거를 확고히 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에서 저술된 한국 관련 주요 서적들을 번역하여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 역사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번역서들 중에는 원문 내용의 난해함과 번역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동안 미루어 온 중요 도서들도 눈에 띕니다. 해외 학자들의 역사 이해와 역사 방법론을 살펴봄으로써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한층 성숙될 것입니다.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ranslation Series

번역총서





02 중국의 국경·영토 인식 _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二十世紀的中國邊疆研究—一門發展中的邊緣學科的演進歷程

馬大正·劉繼忠 지음, 조세현 옮김 신국판 418쪽 2007년 14,000원



중국에서 말하는 변강이란, 현재 중국과 영토·국경을 맞대고 있는 특정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정치·군사·경제·문화 방면에서 중국의 변경에 위치했던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책은 선사시기부터 20세기 이전까지의 변강 연구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 뒤, 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가 어떤 배경과 절차를 거쳐 발전했으며 각 시기별 변강 통치 정책에 어떠한 지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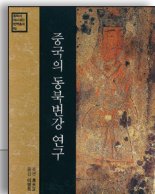
ISBN 978-89-6187-009-2



03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

中國東北邊疆研究

馬大正 주편, 이영옥 옮김 신국판 406쪽 2007년 14,000원



이 책은 동북공정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여 과거 동북 지역에 수립된 국가들이 소수민족 정권이나 지방 정권이라는 논리를 증명함으로써 동북공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서론편에서는 동북공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삼한의 한민족 주체성이나 고구려로부터 조선에 이어지는 계승 관계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북부에 대한 한국 측의 영유권까지도 부정하는 논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ISBN 978-89-6187-010-8



06 민족과 국가 _중국 다민족통일국가사상의 계보

民族與國家—中國多民族統一國家思想的系譜

王柯 지음, 김정희 옮김 신국판 418쪽 2007년 14,000원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북공정 문제와 고구려사·발해사 귀속 논쟁에서 중국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는 '다민족통일국가론'입니다. 이 책을 통해 중국에서 '다민족통일국가론'이 소수민족의 독립주장 문제, 인접 지역과의 역사·영토 분쟁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ISBN 978-89-6187-011-5



09 김육불의 東北通史 上·下 東北通史



● 金毓黻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옮김 ● 신국판 ● 872쪽
 ● 2007년 ● 각 14,000원

이 책은 중국 동북공정의 근간이 되고, 동북공정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에게는 바이블과 같은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북통사는 저자의 강력한 민족주의 의식에 기반하여 탄생한 만큼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의 원류라 할 수 있으며, 동북통사가 발간된 1941년은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번역 앞부분에 이 책의 의미와 문제점, 한계점 등을 조목조목 서술한 경성대학교 한규철 교수의 해제를 수록하여 단순 번역을 벗어나 우리의 논리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ISBN 978-89-6187-014-6



10 발해국 흥망사 渤海國興亡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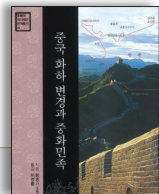


● 濱田耕策 지음, 신영희 옮김 ● 신국판 ● 251쪽 ● 2008년 ● 10,000원

이 책은 흥망사관(興亡史觀)의 구분법으로 발해사를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서술했습니다. 발해사를 당의 모방 혹은 위성국으로 보지 않으며 일본과의 외교에도 중점을 두지 않고 개성 있는 독자적 역사로 다루는 것에 역점을 둔 이 책을 통해 발해사를 주인공으로 한 그들만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사관 및 시점과도 일치하지 않는 저자의 시점에서 그려진 발해사의 여러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고 특히 발해와 일본 간의 활발했던 교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ISBN 978-89-6187-036-8



11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華夏邊緣－歷史記憶與族群認同



● 王明珂 지음, 이경룡 옮김 ● 신국판 ● 579쪽 ● 2008년 ● 20,000원

중국 대륙의 12억 명 이외에도 전세계에 수천만 명의 화인(華人)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인의 '중족 변경' 형성과 변천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중국 '변경'의 생성과 확장, '변경'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사람의 상호 관계라는 관점에서 화하족(고대 중국인)의 기원·형성·확장을 해석했고, 어떻게 근대 '화하족 변경의 재구성'을 거쳐서 한족과 소수민족들을 포함한 현재 중국인으로 변화했는가를 해석했습니다. ISBN 978-89-6187-0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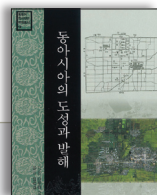
ISBN 978-89-6187-057-3



12 동아시아의 도성과 발해

東アジアの都城と渤海

● 田村晃一 외 지음, 임석규 옮김 ㉠ 신국판 ㉡ 573쪽
 ㉢ 2008년 ㉣ 20,000원



저자는 지금까지 『동경성(東京城)』을 통해 말해 왔던 상경(上京)을 재정리된 자료에 의거하여 보다 깊게 이해함과 동시에 발해의 모든 도성은 동아시아의 중심 도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현재 발해 도성유적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한국의 연구자로서 일본 연구자들의 고고학적 성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ISBN 978-89-6187-059-7



13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상·하

早期中國文明－東北文化與幽燕文明

● 郭大順·張星德 지음, 김정열 옮김 ㉠ 신국판 ㉡ 1322쪽
 ㉢ 2008년 ㉣ 각 23,000원



동북문화와 유연문명에서 동북은 현재 중국의 '동북' 지역을, 유연은 지금의 허베이성 북부와 랴오닝성 서부 일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는 지역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은 것으로, 저자들은 고대 중국에 '동북'이라는 문화적 일체성 혹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 영역이 존재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화의 양상과 의의를 서술했습니다. 이 책은 중국 '동북' 지역의 초기문화를, 특히 고고학적 입장에서 정리했으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제 지역의 고대문명과의 밀접성도 밝히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062-7



14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高句麗の歴史と遺跡

● 東潮·田中俊明 지음, 박천수·이근우 옮김
 ㉠ 신국판 ㉡ 675쪽 ㉢ 2008년 ㉣ 23,000원



고구려는 고대 동북아시아의 대국이었습니다. 전성기였던 5세기에는 남북조 시대의 중국 왕조를 중화로 우러러보면서도 주변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중화로 자처했습니다. 이런 고구려의 유적은 삼국에 걸쳐있고, 고구려계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남긴 족적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고구려에 관한 자료와 사료를 가능한 한 널리 수집하여 고구려를 다각·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구려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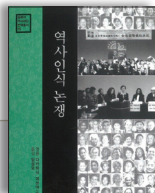
ISBN 978-89-6187-064-1



역사인식 논쟁

〈歷史認識〉論爭

● 高橋哲哉 역음, 임성모 옮김 ● 신국판 ● 478쪽
● 2009년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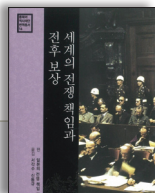
이 책은 무엇이 ‘과거의 극복’을 방해해왔고, ‘과거의 극복’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I부에서는 세 명의 논객과 편자가 참여하여 ‘역사인식’ 논쟁을 현시점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제III부에서는 젊은 세대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특히 변화가 큰 한국과 타이완 등과의 교류에 입각하여 생성 중인 초국가적 역사인식의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제II부와 제IV부는 핵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현재의 ‘역사인식’ 논쟁에 내포된 논점을 정리·검증·비판했습니다. ISBN 978-89-6187-112-9



세계의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季刊 戰爭責任研究

●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편, 서각수·신동규 옮김 ● 신국판 ● 557쪽
● 2009년 ● 20,000원



이 책은 한일 간의 역사대화를 진전시키고, 독자들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과 전후처리 문제 등을 바라볼 때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번역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사례와 일본 내의 논의들은 한국과 일본 간의 식민지 및 전후처리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고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심각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이 책에 소개되는 글들은 보다 넓은 틀에서 전쟁책임과 전후보상 문제를 이해하며, 시민운동의 차원에서는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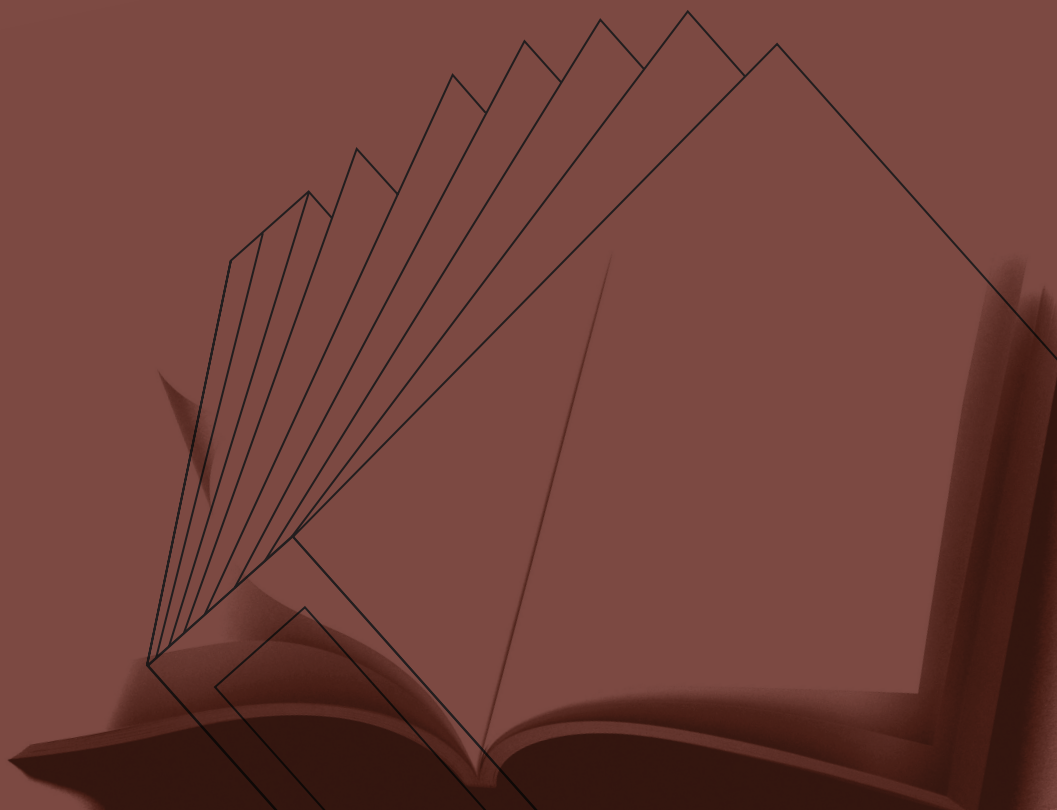
Sources for Northeast Asian History



역사연구에 있어 1차 사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창한 역사적 주장도 1차 사료에 근거하지 않으면 역사소설에 불과할 뿐 실증적 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차 사료는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국어가 아닌 한문이나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한국·중국·일본 등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읽고 취사선택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동북아역사 자료총서는 이러한 1차 사료를 현재의 우리가 보기 쉽도록 모아 편찬하고 각 사료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해석을 가미한 고문헌의 보고입니다. 특히 중요 주제를 중심으로 한·중·일에 있는 각종 사료를 두루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광복 직후의 한일회담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관련 학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역사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Sources for Northeast Asian History

자료총서





01 渤海史 資料集 上·下



동북아역사재단 편 46배판 896쪽 2007년 (상) 20,000원, (하) 23,000원

발해는 고구려의 영토와 문화를 계승했고 신라와 더불어 우리 역사의 남북국시대를 열었으며, 일본과 중국·북방을 잇는 해상강국이자 교역국으로서 우리 역사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발해사 연구는 공간적 제약과 더불어 관련 사료의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해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발해사 관련 자료를 대부분 망라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 발간되는 발해사 자료집으로써 그 의미가 큼니다.

ISBN 978-89-6187-022-1



02 朝鮮時代 北方史 資料集



동북아역사재단 편 46배판 507쪽 2007년 25,000원

조선시대 영토는 한반도로 국한되었으나, 북방은 반만년 동안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으며, 조선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 거주했습니다. 당대인들의 북방 기록이나, 사행 기록을 보면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후기에 작성된 기록 가운데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조선 영토에 관한 자료를 선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595년에서 1908년 사이에 작성된 총 16종의 자료를 수록했으며, 조선후기에 요동 및 간도 지역을 직접 방문한 이들이 기록한 견문기록을 모았습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요동 이동 지역은 조선의 고토(故土)'라는 일관된 의식을 가지고 북방의 역사지리에 관한 자료를 꾸준히 섭렵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BN 978-89-6187-024-5



05 朝·淸 國境會談 資料集



동북아역사재단 편 46배판 409쪽 2007년 23,000원

북방지역은 고조선에서 발해까지의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이며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조선과 청은 두만강 대안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의 철수 문제를 계기로 두 차례의 국경회담을 열어 토문강 해석문제 등을 비롯한 양국 간 국경 구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책은 1885년(고종 22)의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고종 24) '정해감계 회담'에 관한 자료를 비롯하여 간도 문제의 연원, 변경 지역 주민들의 사정에 대한 당시의 기록 등을 모은 자료집입니다.

ISBN 978-89-6187-025-2



07
13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 국역 『同文彙考』 犯越 史料 1



배우성·구범진의 46배판 각 788쪽·823쪽 2008년 각 29,000원·30,000원

『同文彙考』는 17세기 초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조선이 청·일본과 주고받았던 외교문서를 모은 것으로, 조선시대 한중관계사 및 국경 문제를 정리한 1차 사료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조선시대 대외관계사 및 변경 문제 연구의 필수적인 자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자료집은 이용상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표점작업과 국역작업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간도 문제 등으로 국경과 변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변경 문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033-7 / ISBN 978-89-6187-075-7

14

譯註 『勘界使臚錄』



이왕무 외 46배판 359쪽 2008년 20,000원

청국은 19세기말 서구열강의 침략으로 영토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서 만주 전역에 대한 지배를 천명했으며, 조선인들이 정착해 있던 간도지역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속종대 양국의 협의에 따라 건립한 「백두산정계비」에 의해 간도가 조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에 국경 획정(劃定)을 위한 회담인 ‘감계(勘界)를 했습니다. 역주 『감계사등록』은 19세기말 조선과 청국 간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양국의 국경을 조정하기 위해 개최했던 1885년 회담과 조선 측 대표였던 이중하의 청국 국경회담 당사자와의 만남에서 백두산 등정, 필담 등이 실려 있습니다.

ISBN 978-89-6187-076-4



韓日會談 外交文書 解題集 I~V

- I. 예비회담~5차 회담
- II. 평화선·복송·6차 회담 [예비교섭·청구권]
- III. 6차 회담
- IV. 고위 정치 회담 및 7차 회담 [법적지위·어업관계·문화재]
- V. 7차 회담 [기본관계·청구권·협정체결]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 46배판 ● 4,244쪽 ● 2008년 ● 각 50,000원

2005년 8월 한국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 교섭(한일회담)에 관련된 외교문서를 전면 공개하여 그동안 비밀로 취급되었던 정부의 외교문서를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일회담 외교문서는 6개월 간의 심사 작업을 거쳐 156권 35354쪽에 이르는 문서가 한 장도 빠짐없이 공개되었습니다. 외교문서의 전면공개로 그동안 세간의 수많은 의혹과 의혹의 대상이 되어왔던 한일회담에 대해 이제는 상당 부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은 모두 다섯 권의 42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제1권에는 예비회담과 제1~4차 한일회담 및 제5차 한일회담의 예비회담 관련 문서의 해제를 수록했습니다. 제2권에는 평화선·복송·6차 회담을, 제3권에는 6차 회담 관련 문서의 해제가 담겨있습니다. 제4권에는 고위 정치회담과 7차 회담이, 제5권에는 7차 회담 관련 문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ISBN 978-89-6187-053-5

21~
24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4

- 21. 史記 外國傳 譯註
- 22. 漢書 外國傳 譯註 (上·下)
- 23. 後漢書 外國傳 譯註 (上·下)
- 24. 三國志·晉書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편 46배판 1,616쪽 2009년 각 13,000원

역대 중국의 왕조들이 정사에 대부분 '외국전'을 두어 상대적으로 풍부한 기록을 남긴 데 비해, 인접 국가나 종족들은 그들 스스로의 입장에서 정리한 고대사 기록을 충분히 남기지 못하여 중국 정사의 내용에 의존하여 역사를 복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외국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는 전근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은 '외국전'에 실려 있는 외국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외국 인식의 이념적 원리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 중심의 역사·변경·세계인식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국내 외적으로 중국 정사 '외국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역주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입니다. 외국전 기사의 방대한 분량과 원문의 난해함으로 인해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 연구자라 할지라도 독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난해한 한문 사료에 대한 가독성을 높여 외국전 자체에 내포된 외국인식의 이념적 원리와 실체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종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전문 연구자에게는 연구 분야의 확대와 연구 수준의 심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일반 독자에게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및 교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1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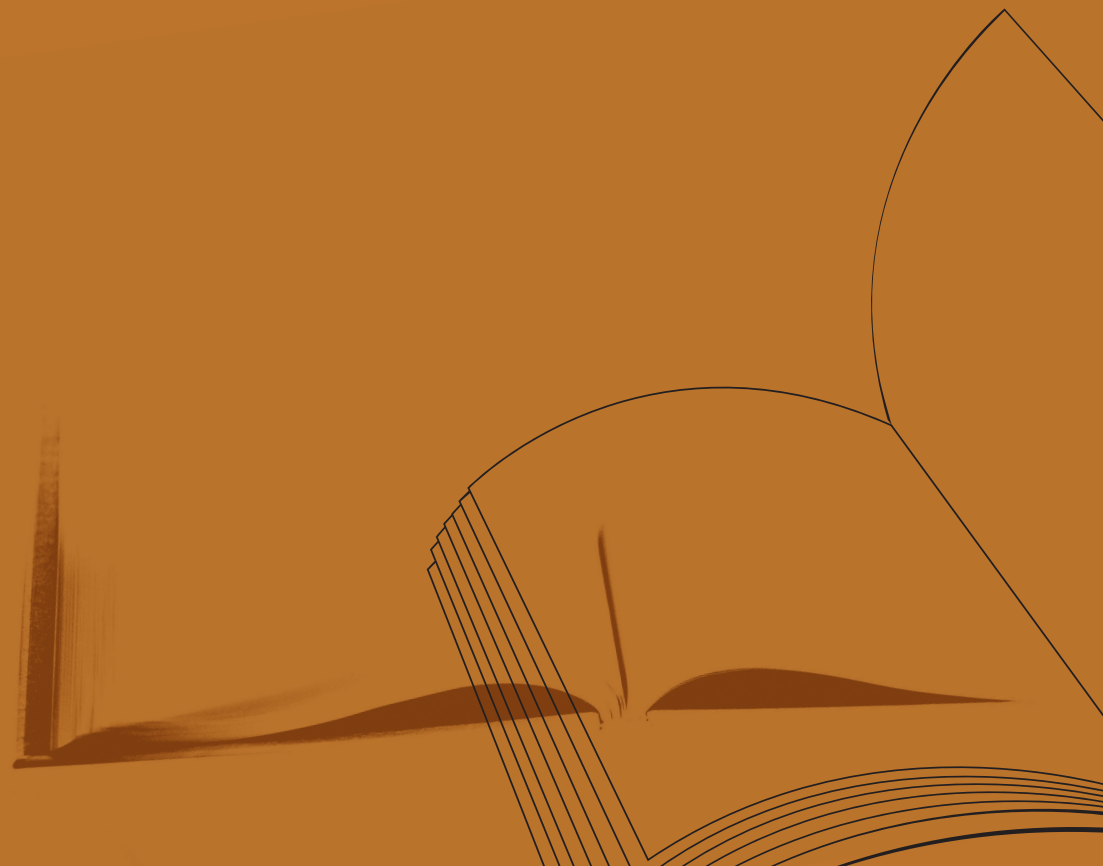
Other Publications

한

역사 갈등은 역사해석 자체에 대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영토문제와 연관될 때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갈등과 영토문제는 비단 한·중·일 3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일어났으며,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토갈등 중에는 양국 간의 평화적 논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한 경우도 있지만 민족주의만을 강조하며 폭력과 갈등으로 얼룩져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 갈등과 영토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공존, 협력과 안정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Other Publications

기타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Data Bank of Colonial History related Territorial Disputes



배진수, 윤지훈 | 국판 | 179쪽 | 2008년 | 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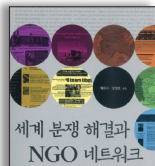
이 책은 ICOW 데이터뱅크를 통해 1816년 이래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세계의 영토분쟁을 대상으로 세계 식민지역사 데이터와 비교분석, 도서 영유권 분쟁을 포함한 식민침탈 영토분쟁 사례 12건을 추출해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룬 사례들은 대부분 독도와 유사한 식민국가와 피식민국가 간 영토분쟁이면서 그동안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큽니다.

ISBN 978-89-6187-037-5



세계 분쟁 해결과 NGO 네트워크

The Role of NGOs Network for the Peacefull Conflict Resolution



배진수, 강성호 | 신국판 | 279쪽 | 2008년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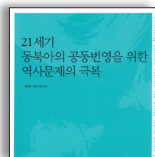
이 책은 21세기 들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어떤 별도의 실제로 가능한 유형이 바로 활동영역과 역할이 점점 커지는 NGO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정체성의 사활이 걸려 있는 역사적 문제나 역사적 근원에 근거한 영유권 분쟁 등의 '양립될 수 없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 차원의 분쟁해결 시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NGO들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ISBN 978-89-6187-054-2



21세기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문제의 극복

Overcoming Historical Conflicts for Northeast Asian Co-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동북아역사재단 편 | 신국판 | 320쪽 | 2008년 | 10,000원

현재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역사문제'입니다. 특히 한·중·일 삼국은 지역적으로 긴밀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 문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책은 자국·자민족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역사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ISBN 978-89-6187-032-0



초기 고구려역사 연구 高句麗早期歷史研究

The History of Early Koguryo



동북아역사재단 · 중국사회과학원 편 신국판 397쪽 2008년 15,000원

초기 고구려역사는 한중 학자 간에 이견이 많은 부분이며, 고구려의 성격과 실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과 중국 대표학자들이 이를 둘러싼 이견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논의는 고구려사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중간의 역사인식 차이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ISBN 978-89-6187-069-6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Issues in Korean-Japanese Relations
- from the Point on international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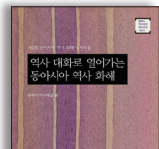
김부자의 신국판 669쪽 2009년 20,000원

이 책은 한일간의 역사현안과 관련된 여러 국제법적 과제들을 재조명하고 그 연구결과와 대응 방안을 수록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2000년 법정’ - 국가관여와 ‘강제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제법학자 2인과 역사학자 2인이 학제적 연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법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일간의 역사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제를 국제법적 정의라는 시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082-5



역사 대화로 열어가는 동아시아 역사 화해

Opening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East Asia through
the Historical Dialogue



동북아역사재단 편 신국판 455쪽 2009년 15,000원

이 책에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학자뿐만 아니라 독일 등 서구학자들의 역사 화해의 경험에 대한 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미래를 설계하고, 역사 대화가 국가 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최적의 참고가 될 것입니다.

ISBN 978-89-6187-108-2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I

關東·東北 지역 편

War Recollections and Peace Museums i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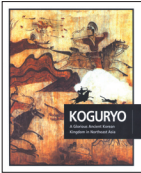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편 46배판 253쪽 2009년 8,000원

이 책은 일본의 평화기념(자료)관을 소개한 책입니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기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계승·이해되고 있는지 일본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평화기념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자료집에서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關東) 지역과 동북(東北) 지역 일대에 있는 주요 평화기념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ISBN 978-89-6187-113-6



OTHER VOLU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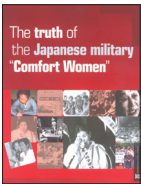
Koguryo : A Glorious Ancient Korean Kingdom in Northeast Asia

한반도는 물론 광활한 북방영토까지 누리며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사진 자료와 쉬운 내용으로 만든 영문책입니다.



중국의 역사만들기 프로젝트- 동북공정 바로알기 *What is Northeast Project of China?*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고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동북공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을 위해 만든 책입니다. 동북공정의 문제점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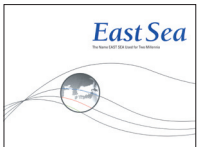
The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며, 인권유린입니다. 영어로 발간된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향후 이러한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독도 6세기 이래의 우리 영토 *Dokdo: Korean Territory Since the 6th Century*

최근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인을 포함한 세계인에게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허구적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East Sea : The Name EAST SEA Used for Two Millennia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으로 제작된 20쪽 안팎의 이 책은 ‘동해(East Sea)’ 표기의 역사적 기원과 당위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도서 목록



발굴보고서와 도록

-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 동북아역사재단 · 북한 사회과학원 · 문화보존지도국 편
- (남북공동학술조사보고서)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 동북아역사재단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 사회과학원 · 문화보존지도국 편
- 내몽고 중남부의 오르도스 청동기와 문화 ● 동북아역사재단 · 중국내몽고문물고고연구소 편
- 중앙아시아의 바위그림 ● 동북아역사재단 편
-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I - 일제 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東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 동북아역사재단 편
- New ●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II - 일제 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西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 동북아역사재단 편
- New ● 몽골 고비 알타이의 암각화 ● 동북아역사재단 · 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편
- New ● 2007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발굴보고서 ● 동북아역사재단 · 러시아과학원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편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 01 ●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분석 ● 이인철 외
- 02 ●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 분석 ● 임상선 외
- 03 ● 중국의 東北邊疆 연구 동향 분석 ● 윤취탁 외
- 04 ● 중국의 한국 고대사 연구 분석 ● 고광의 외
- 05 ● 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 ● 김일권 외
- 06 ● 중국의 민족 · 변강문제 연구 동향 ● 윤영인 외
- 07 ● 중국 역사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 문제 ● 김현숙 외
- 08 ● 중국 역사 교과서의 민족 · 국가 · 영토 문제 ● 장세윤 외
- 09 ● 일본 우익의 어제와 오늘 ● 허동현 외

- 10 ● 부여사와 그 주변 ● 윤용구 외
- 11 ●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 연민수 외
- 12 ●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 김승렬 외
- 13 ● 함께 쓰는 역사 -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와 역사교과서 개선 활동 ● 이용재 외
- 14 ● 가해와 피해의 구분을 넘어 - 독일·폴란드 역사 화해의 길 ● 한운석 외
- 15 ●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 임상선 외
- 16 ● 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 정병준 외
- 17 ●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 ● 신주백 외
- New 18 ●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 배진수 외
- New 19 ● 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 ● 박수철 외
- New 20 ● 고구려 왕릉 연구 ● 강현숙 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 01 ● 고구려의 국가 형성 ● 이남규 외
- 02 ●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문화 ● 전호태 외
- 03 ● 고구려 벽화의 이미지 복원 ● 진영선 외
- 04 ●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 서영대 외
- 05 ● 고구려의 국제 관계 ● 권오중 외
- 06 ● 고구려 문화의 비교 연구 ● 강현숙 외
- 07 ●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 관계 ● 정진현 외
- 08 ●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책봉 ● 방향숙 외
- 09 ● 15~19세기 중국인의 조선인식 ● 박원호 외
- 10 ● 동아시아 근대 '네이션' 개념의 수용과 변용 - 한·중·일 3국의 비교연구 ● 송규진 외
- 11 ● 한·중·일 3국의 근대사 인식과 역사교육 ● 김한중 외
- 12 ●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 이개석 외
- 13 ● 미토콘드리아 DNA변이와 한국인 집단의 기원에 관한 연구 ● 김욱 외
- 14 ● 고고자료에서 찾은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 ● 권오영 외
- 15 ●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 여호규 외
- 16 ● 연변 조선족 사회의 과거와 현재 ● 채영국 외
- 17 ● 중국 역사가들의 몽골사 인식 ● 김장구 외

- 18 ●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 박선영 외 ㄱ
- 19 ● 고분으로 본 발해 문화의 성격 ● 정영진 외 ㄱ
- 20 ● 낙랑 문화 연구 ● 이남규 외
- 21 ●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 박대재 외
- 22 ● 고구려 불상과 중국 산동 불상 ● 양은경 외
- 23 ● 한·중·일의 해양인식과 해금 ● 장동익 외
- 24 ● 아시아의 발칸, 만주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 ● 백준기 외
- 25 ● 발해 5경과 영역 변천 ● 한규철 외
- 26 ●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 유지원 외
- 27 ●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 조세현 외
- 28 ●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 김영구 ㄱ
- 29 ● 중국의 영토분쟁 ● 이동률 외 ㄱ
- 30 ● 근대 중국 대외무역을 통해 본 동아시아 ● 박정현 외
- 31 ●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립 - 청일전쟁에서 한국전쟁까지 ● 이재훈 외
- 32 ● 중국 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 이평래 외
- 33 ●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 정혜중 외
- 34 ● 다민족 국가의 통합정책과 평화정책의 문제
- 독일과 유럽의 역사가 동북공정으로 야기된 동북아의 현 상황에 주는 시사점 ● 노명환 외
- 35 ●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 서영수 외
- 36 ● 러시아의 민족정책과 역사학 ● 박상철 외
- 37 ●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 강인욱 외
- 38 ●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 하원호 외
- New 39 ●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 정태현 외
- New 40 ● 유엔에서의 영토문제 논의현황과 사례분석 ● 김학린
- New 41 ● 근현대 일본의 한국 인식 ● 김광열 외
- New 42 ● 중국의 '지역문명 만들기'와 역사·고고학자료 이용 사례 분석 ● 김병준 외
- New 43 ●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사상 - '일본 중심적 세계관' 생성의 시대별 고찰 ● 김현구 외
- New 44 ● 하상주단대공정 -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허와 실 ● 심재훈 외
- New 45 ●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 송호정 외

- New** 46 ● 중국 문명탐원공정과 선사고고학 연구현황 분석 ● 박양진 외
- New** 47 ● 근대 한·일 간의 상호 인식 ● 권태역 외
- New** 48 ●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 전략 ● 왕현중 외

동북아역사재단 교양서

- 고조선·단군·부여 ● 동북아역사재단 편
- 다시 보는 고구려사 ● 동북아역사재단 편
-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 동북아역사재단 편
-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 동북아역사재단 편
- 고구려 문명 기행 - 고구려의 도읍, 환인과 집안을 찾아서 ● 동북아역사재단 편
-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 동북아역사재단 편
- 새롭게 본 발해사 ● 동북아역사재단 편
- 발해의 역사와 문화 ● 동북아역사재단 편
-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 지배선 외
- New** ● 고구려를 찾아서 ● 동북아역사재단 편
- New** ● 역사 속의 한일관계 ● 동북아역사재단 편
- New** ● 몽골의 역사 ● 강톨가 외 / 김장구·이평래 옮김

동북아역사재단 번역총서

- 01 ● 중국인이 쓴 高句麗史(上·下) ● 耿鐵華 / 박창배 ㄱ
- 02 ● 중국의 국경·영토 인식 - 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 馬大正·劉澐 / 조세현
- 03 ●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 ● 馬大正 / 이영욱
- 04 ● 동북아시아와 카라수크 문화 ● E.A. 노브고로도바 / 이재정 ㄱ
- 05 ● 고구려 역사문제 연구논문집 ● 厲聲·朴文一 / 연변대학 ㄱ
- 06 ● 민족과 국가 - 중국 다민족통일국가 사상의 계보 ● 王柯 / 김정희
- 07 ● 고구려어_일본을 대륙과 연결시켜 주는 언어 ● C.I. 백워드 / 정광 ㄱ
- 08 ● 2005년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논문집 ● 中國社會科學院 東北工程辦公室·延邊大學 中朝韓日關係史研究中心 / 연변대학 ㄱ
- 09 ● 김육불의 東北通史(上·下) ● 金毓黻 / 동북아역사재단
- 10 ● 발해국 흥망사 ● 濱田耕策 / 신영희

- 11 ●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 王明珂 / 이경룡
- 12 ● 동아시아의 도성과 발해 ● 田村晃一 / 임석규
- 13 ●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상·하) ● 郭大順·張星德 / 김정열
- 14 ●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 東潮·田中俊明 / 박천수·이근우
- New 15 ● 역사인식 논쟁 ● 高橋哲哉 / 임성모
- New 16 ● 세계의 전쟁 책임과 전후 보상 ● 일본의 전쟁 책임 자료센터 / 서각수·신동규

동북아역사자료총서

- 01 ● 발해사 자료집 (상·하) ● 동북아역사재단 편
- 02 ●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 ● 동북아역사재단 편
- 03 ● 고조선·단군·부여 자료집 (상·중·하) ● 동북아역사재단 편 ㄱ
- 04 ● 중국 소재 고구려 관련 금석문 자료집 ● 동북아역사재단 편 ㄱ
- 05 ● 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 동북아역사재단 편
- 06 ● 백두산 정계비 자료집 ● 동북아역사재단 편 ㄱ
- 07 ● 국역 『同文彙考』 疆界 史料 ● 배우성·구범진 역
- 08 ●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 - 예비회담~5차 회담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 09 ●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I - 평화선·복송·6차 회담(예비교섭·청구권)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 10 ●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II - 6차 회담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 11 ●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V - 고위 정치회담 및 7차 회담[법적지위·어업관계·문화재]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 12 ●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V - 7차 회담[기본관계·청구권·협정체결]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 13 ● 국역 『同文彙考』 犯越 史料 1 ● 구범진·배우성
- 14 ● 譯註 『勘界使騰錄』 ● 이왕무 외
- New 21 ●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 - 史記 外國傳 譯註 ● 동북아역사재단 편
- New 22 ●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2 - 漢書 外國傳 譯註 (上·下) ● 동북아역사재단 편
- New 23 ●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3 - 後漢書 外國傳 譯註 (上·下) ● 동북아역사재단 편
- New 24 ●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4 - 三國志·眞書 外國傳 譯註 ●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논저 목록

- 01 ● **고구려사 연구논저 목록** ● 동북아역사재단 편
- 02 ● **한중관계사 연구논저 목록(중세)** ● 동북아역사재단 편
- 03 ● **한중관계사 연구논저 목록(근현대)** ● 동북아역사재단 편
- 04 ● **발해사 연구논저 목록** ● 동북아역사재단 편
- 05 ● **북방민족사 연구논저 목록** ● 동북아역사재단 편
- 06 ● **고조선·단군·부여 연구논저 목록** ● 동북아역사재단 편
- 07 ● **중국의 고고와 문화 연구논저 목록** ● 동북아역사재단 편
- New** 08 ● **한일 역사현안 관련 일본 역사교과서 연구논저 목록** ● 동북아역사재단 편
- New** 09 ● **한일 역사현안 관련 일본군 '위안부' 연구논저 목록(상·하)** ● 동북아역사재단 편
- New** 10 ● **한일 역사현안 관련 야스쿠니신사 연구논저 목록** ● 동북아역사재단 편

기타

-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 배진수 · 윤지훈
- **세계 분쟁 해결과 NGO 네트워크** ● 배진수 · 강성호
- **21세기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문제의 극복** ● 동북아역사재단 편
- **초기 고구려역사 연구** ● 동북아역사재단 · 중국사회과학원 편
- New** ●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 김부자 외
- New** ● **역사 대화로 열어가는 동아시아 역사 화해** ● 동북아역사재단 편
- New** ● **일본의 전쟁지역과 평화기념관 I - 關東·東北 지역 편** ●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historyfoundation.kr) 자료마당에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lease visit our homepage (www.historyfoundation.kr) for detailed information on our publications. Publications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may be purchased at any major bookstore or online bookseller.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하는

행복한 역사읽기

-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교과서 문제, 중국의 한국고대사 왜곡 등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의 역사갈등을 넘어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역사 알기
- 올바르고 새로운 분야의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에게 꼭 들어맞는 맞춤 도서





본 도서목록은 100% 친환경 용지와 식물성 잉크로 제작되었습니다.

2009
동북아역사재단
도서목록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ublication List

